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골드만삭스, "미 상호 관세 15%에 핵심 물가 상승" 예상
- WSJ: 미 '중부 대서양 지역' 제조 활동 올해 빠르게 위축

[미국 금융]

- YahooFinance: 달러가 트럼프 어젠다를 어렵게 하고 있다
- Bloomberg: 시장 조사 "관세 불구 미 증시 2분기 상승" 예상

[무역 전쟁]

- WSJ: 일본의 미 관세 15%로 합의...일본 자동차, 쌀 시장 개방
- WSJ: ADB, "미 관세 리스크로 아시아 경제 추가 하향 조정"...한국은 올해 0.8%
- WSJ: 트럼프, 글로벌 관세 회담에서 빅테크 지킨다

[주택]

- WSJ: 6월 주택 가격 최고치에 판매 감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로봇들이 음식 배달 장악한다
- Bloomberg: 애플, 최대 3개 기기 보장하는 월 20달러 보험 플랜 출시
- WSJ: 아마존, 모든 대화 기록하는 AI 팔찌 추진
- Bloomberg: 스타벅스, 고객 유치 위해 중국에 무료 스터디룸 오픈

[보고서]

- The Economist: 일부 미 항공사, 1인 승객에 요금 더 부과한다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Goldman Sachs Sees Trump's Baseline Tariff Rate Rising to 15% 골드만삭스, "미 상호 관세 15%에 핵심 물가 상승" 예상

-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기본 상호 관세가 10%에서 15%로 상승하고 구리와 핵심 광물 관세가 50%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 기관은 올해 핵심 물가는 3.3%로 예상하고 향후 2-3년간 관세가 핵심 물가를 1.7%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 이 기관은 관세가 올해 미 GDP를 1%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은 1%로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U.S. Mid-Atlantic Factory Activity Contracts at Fastest Rate This Year

미 '중부 대서양 지역' 제조 활동 올해 빠르게 위축

- 리치몬드 연준이 관할하는 버지니아 등 미 중부 대서양 지역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인 동남부 지역의 제조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 관련 제조 활동 지수는 6월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0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예상치를 밑둔 것이다.
- 구체적으로 고용 지표가 하락한 반면, 향후의 출하와 새로운 주문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WSJ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How the dropping dollar could scramble Trump's agenda 달러가 트럼프 어젠다를 어렵게 하고 있다

- 트럼프와 참모진은 올해 첫 6개월간 달러 약세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예컨대 관세가 연준에 주는 부담에서부터 글로벌에서 미국의 영향력 등 달러 약세에 따른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은 달러 약세가 트럼프의 어젠다에 단기적으로 유리한 여파를 줄지, 아니면 달러가 반드시 강세를 보여야 할지 여부이다.
- 연방 상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달러 약세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그러나 달러 약세는 미국의 수출 능력을 강화지만 외국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물가 비용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트럼프의 목표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 트럼프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코 달러 하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달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Earnings Will Boost Stocks Despite Tariff Risks, Survey Shows

시장 조사 "관세 불구 미 증시 2분기 상승" 예상

- 가장 최근의 Markets Pulse에 따르면 관련 참가자 102명 중 3분의 2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미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Solutions의 재무 책임자인 Max Gokhman은 "기술 종목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들은 강자로서의 파워를 여전히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반면에 설문 응답자들은 관세로 인해 필수재가 아닌 임의 소비재 기업들이 취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들은 기업 실적의 최대 리스크는 관세라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WSJ: U.S. and Japan Reach Trade Deal 일본의 미 관세 15%로 합의...일본 자동차, 쌀 시장 개방

- 트럼프는 일본산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그는 또한 일본은 미국에 5천5백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 중 90%는 미국이 수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 또한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 트럭, 쌀, 다른 농수산물을 개방하기로 했다.
- 물론 철강은 여전히 50% 관세가 부과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합의로 일본의 경제 타격이 당초 우려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WSJ: Tariff Risk Drives Another Round of Asia Forecast Downgrades ADB, “미 관세 리스크로 아시아 경제 추가 하향 조정”...한국은 올해 0.8%

- 아시아 개발 은행의 연구팀은 앞으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4월의 4.9% 성장 전망이 4.7%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4.6%로 더 낮게 조정했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세 조건과 불확실성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특히 한국과 인도가 관세 압력으로 인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의 부동산 분야도 리스크로 지목했다.
- 한국은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에는 1.6%로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WSJ: Trump Goes to Bat for Big Tech in Global Trade Talks 트럼프, 글로벌 관세 회담에서 빅테크 지킨다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 섹터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관세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테크 기업들에게 외국 정부들이 새로운 관세나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현재 한국, 브라질, 유럽 연합 등과의 관세 논의에서 디지털 세금과 규정이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주택]

WSJ: Home Prices Hit Record High in June, Dragging Down Sales 6월 주택 가격 최고치에 판매 감소

- 주택 가격이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중요한 봄철 매매 시즌에 주택 판매가 감소하여 6월 주택 매매는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2025년에 주택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징조이다.

-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는 6월 전국 주택 가격 중간값이 435,300달러로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최고치이며 전년 대비 2% 상승한 수치이다.
- NAR에 따르면, 미국 주택 매매는 6월에 전월 대비 2.7% 감소한 연간 393만 채를 기록했는데, 이는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월별 감소율을 0.7%로 추산하며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수년 간의 공급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 전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he Robots That Are Taking Over Your Food Delivery 로봇들이 음식 배달 장악한다

-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2019년 이후 로봇 회사에 약 35억 달러의 투자와 수년 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Coco Robotics는 DoorDash와 Uber Eats 등의 앱과 연계해 수천 대의 음식 배달 로봇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레이저와 카메라 기반 경로 탐색 기술이 적용되어 충돌 방지와 음식 보호 기능을 갖췄다.
- 글로벌 기술 서비스 기업 Acrelec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Double Check라는 스마트 저울을 개발하여 음식 무게를 기준으로 주문 완료 시점을 운영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무인 배송 회사 Zipline은 자율 주행 항공기를 음식 배달에 활용하고, 자동차나 자전거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Apple Launches \$20-a-Month AppleCare One Plan Covering Up to Three Devices

애플, 최대 3개 기기 보장하는 월 20달러 보험 플랜 출시

- 애플이 구독 수익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최대 3개의 기기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 플랜 AppleCare One을 출시했다.
- AppleCare One은 월 20달러에 제공되며, 이 서비스에는 배터리 교체, 24시간 고객 지원, 그리고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추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기당 월 6달러가 추가된다.
- 이 플랜은 아이폰, 아이패드, Mac, 애플워치, Vision Pro, HomePod 스피커 등 기존 AppleCare+ 플랜에 포함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또한,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새 아이폰, 아이패드, 혹은 애플워치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애플의 서비스 부문은 이 보험 플랜 출시로 올해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아이폰 다음으로 애플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Why Amazon Wants an AI Bracelet That Records Everything You Say 아마존, 모든 대화 기록하는 AI 팔찌 추진

- 웨어러블 테크 기업 Bee가 아마존에 인수된. Bee의 웨어러블 팔찌는 혼잣말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이벤트 부터 할 일 목록까지 다양하게 제공한다.
- 웨어러블 기기는 생성형 AI가 탑재되어 항상 사용자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삶의 행동에 대한 맥락을 더 많이 수집할수록 더욱 유용해진다. 충분한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AI 모델 자체를 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아마존이 최근 공개한 대화형 Alexa+ 베타 버전을 출시하며 생성형 AI 전략을 강화했는데, Bee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AI 모델 훈련을 개선하려는 전략이다.
- Bee는 AI를 이용하여 개인화된 AI 접근을 목표로 하며 유용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글, 메타, 삼성에 이어 AI 기기 시장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발전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tarbucks Opens Free Study Rooms in China to Lure Customers

스타벅스, 고객 유치 위해 중국에 무료 스터디룸 오픈

- 스타벅스가 소비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중국 내 일부 매장에 무료 스터디룸을 오픈했다.
- 이 공간은 스타벅스에서 음료나 음식, 혹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한이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한 도서 기증 공간도 마련되어있다.
- 이는 중국 내 저렴한 현지 경쟁업체들과 차 체인점들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매출 성장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미국 스타벅스는 유료 고객을 우선시하여 카페 안 공간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물건을 사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 스타벅스의 최근 행보는 이와 정반대인 것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The Economist: 일부 미 항공사, 1 인 승객에 요금 더 부과한다 일부 항공사가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항공료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오랫동안 가격을 차별해왔다. 항공사의 미비한 이익을 늘리기 위해 주말 여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요금 펜스(Fare Fences)”를 도입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 할 의향이 있는 출장객 등 1인 여행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항공사들의 가격 책정법은 정교하게 발전해왔다.

지난 5월, 여행 특가 웹사이트 Thrifty Traveler은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가 2인 예약 시보다 동일한 1인 여정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항공사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델타와 유나이티드는 여론 비판으로 이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The Economist 원문

약달러에 날개 단 유로화...4 년 만에 최고 수준

**수출업체엔 악재·저물가 우려도
"유로 더 강해지면 자멸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치솟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11% 넘게 상승하며 1.18 달러까지 올랐다. 4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화는 미 달러에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다. 일본 엔화나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달러화,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거의 기록적인 수준까지 가치가 상승했다. 유로의 강세가 달러의 약세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